



차이나

CHINA Market Watch

마켓 워치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

전화 : 86-10-6505-2671/3

이메일 : beijingk@kita.net

1 中, 11월 신에너지차 판매량 전년 동기대비 72.3% 증가한 78.6만 대 기록

- 중국의 신에너지차 생산량과 판매량이 올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시장점유율도 점차 높아지는 추세임
- 중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11월 신에너지차 생산량과 판매량은 각각 전년 동기대비 65.6%, 72.3% 증가한 76.8만 대, 78.6만 대를 기록했으며 시장점유율은 33.8%에 달함
- 한편 1~11월 신에너지차 누적 생산량은 각각 625.3만 대와 606.7만 대로 전년 동기대비 1배 증가하였고, 시장점유율은 25%로 나타남

자료원 : 중국신문망

http://www.ce.cn/xwzx/gnsz/gdxw/202212/09/t20221209_38279607.shtml

2 中, 디스플레이패널 산업규모 글로벌 1위로 도약

- 중국 공업정보화부에 따르면 디지털 시대의 주요 매체이자 인간-기계 인터페이스 기반인 신형 디스플레이패널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여 새로운 단계에 진입함. 연간 생산량은 2억㎡로 산업규모가 글로벌 1위를 달성하여 정보소비 업그레이드와 디지털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중요한 역량으로 부상하였음
- 중국광학광전자산업협회 액정패널분회에 따르면 2021년 중국의 디스플레이 산업가치는 5,868억 위안(약 111조 원)으로 10년 전보다 8배 가량 성장하고, 패널 출하면적은 1.6억㎡로 10년 전보다 7배 이상 증가하여 산업규모와 패널 출하면적이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36.9%, 63.3%로 상승하여 글로벌 1위를 기록하였음

- 현재 중국의 LCD패널(액정표시장치)의 글로벌 시장점유율은 70% 이상에 달하며, OLED (유기발광다이오드)패널 분야는 많은 중국 기업들이 핵심기술을 장악하고 R&D 기술혁신 도모 및 생산규모가 신속하게 확대되는 추세임. 이 중 중소형 OLED패널 시장점유율이 빠른 상승세로 올해 3분기 중국산 스마트폰 OLED 패널의 글로벌 시장점유율은 전년 동기대비 10%p 상승한 30%를 기록함. 그 외 마이크로LED, 인쇄LED, 레이저LED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력 향상에 집중하고 있음
- 신형 디스플레이 산업은 스마트폰, TV, 모니터, 노트북, 태블릿 PC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이 가능하고 디지털 문화관광, 디지털 의료, 트레이닝, 자동차 모니터, 디지털 장비 등 신산업과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현실세계의 기계나 장비, 사물 등을 컴퓨터 속 가상세계에서 구현하는 기술) 등 미래지향 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고 있음
- 중국 공업정보화부 관계자는 향후 산업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하여 신형 디스플레이 산업 핵심기술을 공략하고 인공지능, VR·AR,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디지털기술의 심도 있는 융합을 추진하며 국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신형 디스플레이 산업 가치사슬을 중고급 단계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말함

자료원 : 인민일보

<https://wap.peopleapp.com/article/6943299/6803621>

3 中 각 지방정부, 무역업체 대표단 해외 출장 지원

■ 최근 중국 각 지역별 정부 차원에서 무역업체 해외출장 지원을 강화하는 추세임

- 쑤저우시 상무국은 12월 7일자 발표를 통해 11월 17일~23일 기간 동안 전세기로 일본에 88명 규모의 기업대표 사절단을 파견하여 일본 200여개 기업을 방문한 후 10억 위안(약 1,880억 원)의 신규 주문을 확보하였으며 12월 9일~18일에는 프랑스와 독일에도 대표단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힘
- 앞서 금년 7월 저장성 Ningbo시에서도 전세기를 이용하여 유럽에 대표단을 파견하였으며, 출장기간은 12일, 주요일정은 전시회 참가, 고객사 방문, 공장 시찰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이후 항저우시, 자싱시, 타이저우시 등지도 기업 대표단을 해외로 파견하였음
- 12월부터는 저장성, 장쑤성, 광둥성, 쓰촨성, 푸젠성 등 지역에서 전세기를 이용하여 글로벌 시장 개척에 나섰다, 12월 3일 저장성은 앞으로 1만개 기업을 조직하여 해외 전시회와 비즈니스 상담회에 참가시킬 계획을 밝혔음

- 중신증권 관계자는 올해 11월 유럽, 미국, 일본 등 국가에 대한 수출이 마이너스 증가세를 보여 지역별로 이러한 국가를 집중 주목하고 있으며, 유럽의 에너지 원가 상승으로 향후 유럽 지역으로의 화학공업제품, 기전제품 등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함

자료원 : 증권일보

<http://m.caijing.com.cn/article/282359>

4 中 알리바바닷컴, 2022년 10대 상품 명단 발표

- 중국 본토 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알리바바닷컴(阿里巴巴国际站)은 12월 5일자로 2022년 10대 상품을 발표하였으며 신에너지 설비, 레이저 절단 설비, 월드컵 주변상품 등 중국산 제품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한 것으로 나타났음
- 10대 상품으로는 가정용 태양광 설비, 전기담요, 이동식 패널주택, 레저 양봉(养蜂) 설비, 벽걸이형 전기차 충전기, 레이저기기, 캠핑용 텐트, 월드컵 관련상품, 전동 자전거, 네일 스티커, 속눈썹 등임
- 글로벌 무역이 불확실한 새로운 형세에서 알리바바닷컴의 10대 상품 발표는 중소 민영기업이 상품 수출 추세와 중국경제와 글로벌 경제간의 긴밀성, 중국 산업망이 신속하게 해외시장 수요를 부응시키는 능력도 보여주었음

2022 알리바바 10대 상품



▲가정용 태양광 설비



▲전기담요



▲이동식 패널주택



▲양봉설비



▲벽걸이형 전기차 충전기



▲레이저기기



▲캠핑용 텐트



▲월드컵 관련상품



▲전동 자전거



▲네일 스티커

자료원 : 항저우일보

<https://baijiahao.baidu.com/s?id=1751354801722576769&wfr=spider&for=pc>

5 中, 올해 해외에서 인기인 12대 수출품목 발표

- 올해 CCTV 보도를 종합해 보면 성탄절 용품, 배추김치, 보온병, 헬스기기, 난방용품, 풍력 발전 설비, 컨테이너 선박, 리튬 배터리, 가정용 에너지 저장장치, 트렁크, 액정 TV, 자동차 등이 해외에서 인기를 끌었음

- **(성탄용품)** 화징(华经)시장연구센터에 따르면 1~8월 성탄절 용품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94.7% 증가한 574억 위안(약 10.8조원)이며, 이 중 저장성 수출이 76억 위안(약 1조 4,256억원)으로 전체의 13.2%를 점했음. 1~7월 이우시 성탄절 용품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88.5% 증가한 17.5억 위안(약 3,283억원)임
 - **(배추김치)** 칭다오시 농업농촌국에 따르면 칭다오시에는 20여개 규모이상(*연매출 2,000만 위안 이상) 배추김치 공장이 소재해 있으며, 주로 한국으로 배추김치를 수출하는데, 올해 수출량을 27만 톤으로 추산되며, 이는 한국 연간 배추김치 수요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규모임
 - **(보온병)** 보온병 생산업체를 가장 많이 보유한 지역은 저장성이며, 저장성 진화시에만 1,300개의 보온병 생산·판매 업체가 소재해 있음. 1~3분기 저장성의 보온병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73.4% 증가한 50억 위안(약 9,383억 원)에 달함
 - **(헬스기기)** 전 세계 헬스인구는 2023년 13억 명으로 예상되며, 2017~2021년 헬스기기 수출액 연평균 증가율은 32.9%, 2021년 수출액은 89억 달러임. 향후 가정용·소형·스마트 헬스기기가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은 글로벌 최대 헬스기기 수출국으로 미래 수출 전망이 양호함
 - **(난방용품)** 1~8월 난방용 소형가전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21.4% 증가한 144억 위안(약 2.7조 원)임. 1~3분기 전기온수기, 전기스토브 등의 대유럽 수출액은 각각 1.6억 달러, 8.5억 달러에 달했고, 전기담요 수출액은 46.1% 증가하였음
 - **(풍력발전 설비)** 풍력발전 설비 수출량은 2017년 2만 대에서 2021년 4만 대로 증가하고 수출액은 30억 위안(약 5,625억원)에서 90억 위안(약 1.7조원)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1~6월 수출량은 전년 동기대비 절반 이상 증가했음
 - **(컨테이너 선박)** 1~10월 컨테이너 선박 수출량은 93척으로 전년 동기대비 10척이 증가, 수출액은 전년 대비 21.4% 증가한 38억 달러를 기록함
 - **(리튬 배터리)** 1~8월 에너지 저장용 리튬배터리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83% 증가한 299억 달러를 기록함
 - **(가정용 에너지 저장장치)** 장쑤성 타이저우시는 올해 가정용 에너지 저장장치 수출액이 전년 동기대비 700% 급증했으며, 계속하여 양호한 추세를 보이고 있음
-

- **(여행용 캐리어)** 1~10월 가죽트렁크 및 이와 유사한 캐리어 품목의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26.6% 증가한 26억 달러이며, 중국 3대 트렁크 생산기지인 저장성 핑후시에는 트렁크 생산업체 400개사가 소재해 있는데, 1~8월 수출액이 전년 동기대비 60.3% 증가하였음
- **(액정 TV)** 1~7월 누적 수출량은 전년 동기대비 16.4% 증가한 5,158만 대이며, 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TV가 품질과 기술이 글로벌 선진 수준에 도달하여 해외 소비자의 승인을 받고 있으며, 특히 중고가 TV 해외 주문량이 급증하는 추세라고 전함
- **(자동차)** 1~10월 신에너지차 수출량은 전년 동기대비 96.7% 증가한 50만 대이며, 주요 수출시장은 멕시코, 칠레, 사우디, 필리핀, 러시아 등지임. 또한 유럽이 신규 수출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음. 상반기 신에너지차 수출량의 34%가 서유럽에 수출되었고, 이 중 벨기에 수입량이 가장 많았음. 또한 1~7월 전기이륜차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9% 증가한 206억 위안을 기록함

자료원 : 중국국제상회

<https://view.inews.qq.com/a/20221207A06HCS00>

6 中 보건식품·의료기기·화장품 인증·등록 현황

- 중국약보건식품수출입상회에 따르면 수입산 보건식품(영양소 보충제), 의료기기, 특수화장품 등의 인증 및 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음
 - 9월 1일까지 중국산 보건식품 누적 등록건수는 1만 1,682건, 12월 5일까지 수입산 누적 등록건수는 167건이며, 이 중 한국산은 3건(비타민 D, 멀티비타민, 아연캡슐)임. 현재 중국 내 보건식품 인증서는 약 1만 7,000건이며, 이 중 2020년에 인증을 받은 제품은 715건으로 전부 중국산 제품임
 - * 등록제 : 중국산 및 수입산 영양소 보충제(비타민, 미네랄 보충제), 보건식품 원료목록 원료를 사용한 중국산 보건식품(특정 보건기능 보유). 인증제 : 보건식품 원료목록 외 원료를 사용한 중국산 보건식품, 수입산 보건식품
 - 2022년 12월 5일 기준 2022년 수입산 의료기기 인증건수는 578건이며, 한국산은 150건임. 수입산 의료기기 등록건수는 598건이며, 한국산이 60건임
 - * 등록제 : 1등급 의료기기(위험성이 낮고 일상관리로 안정성 및 유효성을 보장 가능한 의료기기), 인증제 : 2등급 의료기기(중등 위험성을 보유하고 엄격한 관리로 안전성 및 유효성을 보장하는 의료기기), 3등급 의료기기(비교적 높은 위험성을 보유하고 특별 조치를 통한 엄격한 관리로 안전성 및 유효성을 보장하는 의료기기)

- 2022년 수입산 특수화장품 인증건수는 479건, 중국산 특수화장품 인증건수는 2,727건임
- * 특수화장품에는 머리염색, 펴, 기미제거 및 미백, 자외선차단, 탈모방지 등 화장품이 포함됨

자료원 : 중국의약품보건품수출입상회(별도문건으로 URL없음)

7 中 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 시장 동향

- '중국 식품·의약품 감독관리' 간행물에 따르면 현재 중국은 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 수요의 70%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써 환자의 영양불량 현상이 심하고 치료와 수술 후 회복에 영향주고 있음
- * 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 : 음식물 섭취 제한 소화 흡수 장애대사교란 혹은 특정 질병 환자의 영양소 혹은 식사 수요 만족을 위하여 전문적으로 가공 및 조제한 식품
- 의약품 기업은 기술 난이도가 높은 전영양 조제식품 위주로 개발하고 유제품 기업은 영유아용 시장을 선점하고 점차 성인용 시장에 진출하는 추세. 등록 제품을 보면 영유아용 조제식품 등 기술 난이도가 낮은 제품에 집중되고 특정 전영양 조제식품은 공백으로 나타남
- * 전영양 조제식품 : 단일 영양 공급원으로 특정 소비자의 영양 수요를 만족하는 식품, 특정 전영양 조제식품이 단일 영양 공급원으로 특정 소비자의 질병 혹은 의학적 상황하의 영양 수요를 만족하는 식품, 비 전영양 조제식품이란 특정 소비자의 부분 영양 수요를 만족하나 단일 영양 공급원으로 사용하는데 부적합한 식품
- 현재까지 총 39개사 94종의 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이 등록에 성공했으며, 이 중 네슬레의 등록건수가 9종으로 가장 많았고, 애보트가 8종, 형루이건강(恒瑞健康), 성위안(圣元), 지린마이푸(吉林麦孚)가 각각 5종으로 뒤를 이었음. 또한 본토 제품배합이 해외 제품배합보다 훨씬 더 많았음
- 등록 제품 중 전영양 배합식품은 24종이며, 네슬레의 종양환자용 제품 '쑤이수(速熠素)'가 등록에 성공하였음. 비전영양 배합식품은 31종이며, 이 중 전해질 조제식품 14종, 탄수화물 조제식품 8종으로 나타남

자료원 : 중국의약품보건품수출입상회(별도문건으로 URL없음)

8 상하이 테슬라공장, 근무시간 단축 및 신입사원 입사 연기 조치

-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테슬라는 중국 상하이 공장 근로자의 근무시간 단축시키고 신입사원의 입사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짐

- 테슬라 상하이 공장은 12월 12일부터 근로자 교대 근무 시간을 11시간 30분에서 9시간 30분으로 2시간 단축시킴. 이와 더불어 테슬라 배터리 작업장과 자동차 조립라인 등에 투입될 예정이던 일부 신입사원의 출근연기 소식이 함께 전해짐
-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생산량 감축 신호로 해석하며 중국 시장에서 테슬라 전기차 수요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추측함. 또한 최근 테슬라는 전기차 가격인하와 구매 인센티브 조치를 내놓으면서 테슬라의 중국 내 경쟁력 약화의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음

자료원 : D1EV

<https://www.d1ev.com/news/qiye/191143>